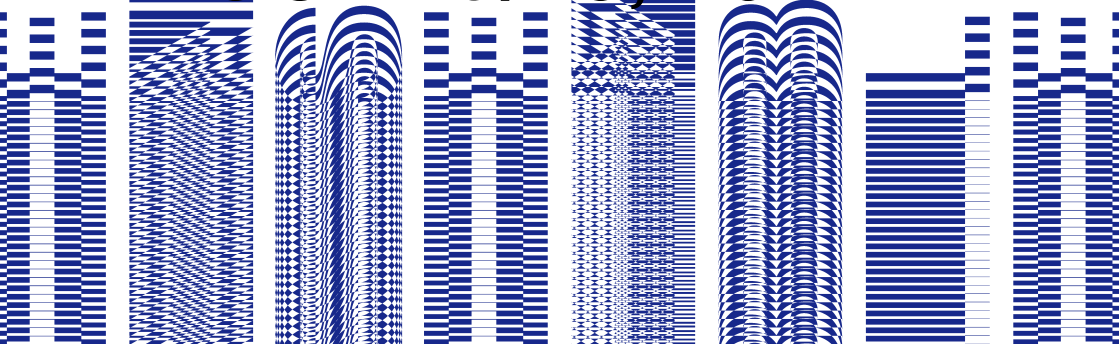


라오스
비엔티안 센터

OCT 25/26, 2022

Vientiane Center
in Laos



2022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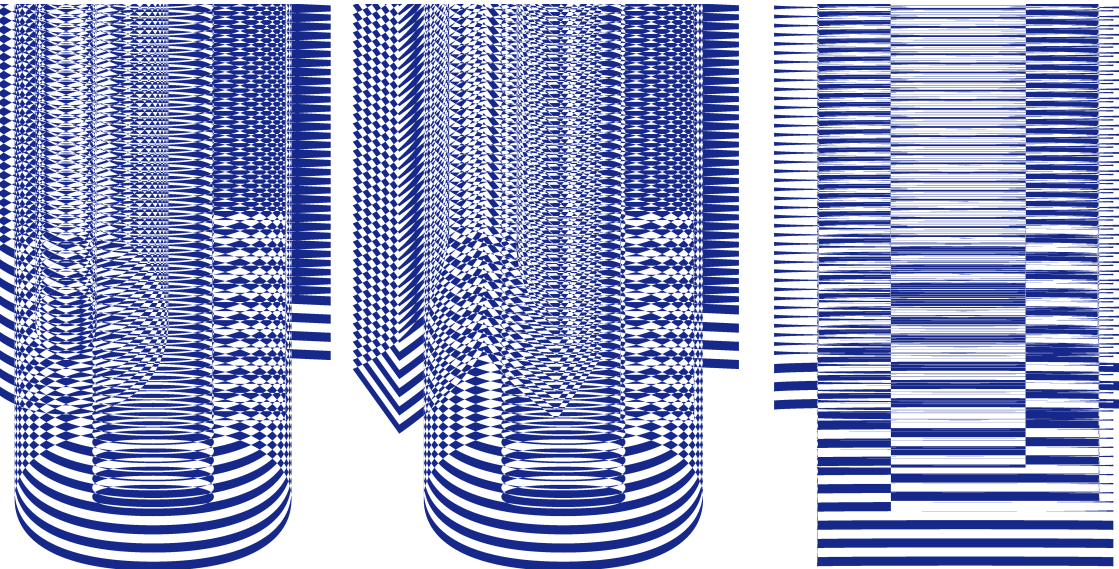
2022 ASEAN-KOREA Innovative Culture Forum

앙상블

ENSEMBLE

루카스 실라버스
소울리야 푸미봉
장전프로젝트 (장준영 & 전지윤)
조은우

Lugas SYLLABUS
Souliya PHOUMIVONG
ChangChun Project
(CHANG Jun Young & CHUN JiYoon)
Eun Woo CHO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기획·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Hosted by the Republic of Korea'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rganized by 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lanned & Produced by Asia Culture Center Foundatio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FICE
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Asia Culture Center Foundation

2022년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비엔티안 센터에서 개최하는 《양상불》 전시는 ‘2022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이하 KOFICE)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Asia Culture Center Foundation, 이하 ACCF)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 팬데믹 아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다양한 변이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서서히 코로나 엔데믹이라는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가 주최하는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의 주제인 ‘문화를 통한 회복, 다시 도약하는 한-아세안인’처럼, 《양상불》전시는 예술로 그간의 힘들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마음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시는 코로나 팬데믹이란 자연의 반격으로 야기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탈인간중심주의를 표방하는 포스트휴먼 (Posthuman)이 가져야할 덕목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인간이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잡초, 동물, 곰팡이, 세포들, 바이러스, 도시의 버려진 쓰레기와 같은, 인간이 아닌 개체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주체성’을 고민하는 이들의 노력에 동참합니다. ‘포스트휴먼’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간과 기계의 결합을 떠올리지만 ‘포스트휴먼’ 연구자들은 거기에만 머물러 기계 존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존재들인 ‘비인간’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 인간과 비인간 간의 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노력은 인류가 세계의 주인공이 되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주도하고 있는 인류세 (人類世, Anthropocene) 시기에 인류가 포스트휴먼으로서 가져할 덕목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데 단초를 제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하는 작품들에는, ACCF가 근래의 환경 이슈에 주목하고 유통하는, 2021년 《포스트휴먼 양상불》 전시의 커미션 작품들인 장전프로젝트 <랜덤 포레스트>, 조은우 <AI, 뇌파 그리고 완벽한 도시>,

루카스 실라버스 (Lugas Syllabus) <삶의 걸음 ‘세상 속으로’>와 <삶의 걸음 ‘바다가 온다’>를 포함하여, 라오스의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소울리아 푸미봉 (Souliya Phoumivong) <플로우>가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무작위적으로 전시장에 방문하는 다양한 관람객들의 표정을 인공지능이 읽어내는 과정에서 무뚝뚝하거나 슬펐던 마음을 ‘행복한’ 마음으로 바꾸려는 관람객들의 노력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AI, 뇌파 그리고 완벽한 도시>는 뇌파측정기를 쓰고 체험하는 관람객으로부터 긍정적인 알파파를 유도합니다. 두 작품은 작품을 체험하는 관람객들이 잠시나마 삶의 여유를 가지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삶의 걸음 ‘세상 속으로’>와 <삶의 걸음 ‘바다가 온다’>는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연 속 다양한 비인간의 존재들을 보여주고 그들과 공존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그들과도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플로우>는 물질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 상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보여주는 작품으로 인간중심적 사고로 발생하는 물질만능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이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길임을 제시합니다.

이번 전시는 인간 말고 지구에는 다양한 비인간의 존재들이 있음을 드러내고 그들과의 연대와 공존을 제안합니다. 끊임없이 인간만을 생각하는 파괴적인 행위들은 자연을 훼손하고 인간마저도 희생시키기에, 《양상불》 전시는 인간이 아닌 존재들을 비롯하여 인간의 감정도 객체화하여 따뜻한 시선으로 어루만지는 포스트휴먼의 도약을 희망합니다.

전시기획 유영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문화유통팀 선임큐레이터)

Ensemble, which is held at the Vientiane Center from October 25 to 26, 2022, is the part of side events for 2022 ASEAN-KOREA Innovative Culture Forum and was enabled by cooperation of th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KOFICE) and the Asia Culture Center Foundation (ACCF). Under the COVID-19 pandemic, which started in 2020, many people are still suffering from various mutations in the virus, but they are slowly heading towards the end of corona endemic. In this situation, like the theme of 2022 ASEAN-KOREA Innovative Culture Forum hos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Leap forward with Cultural Resilience, the exhibition of *Ensemble* soothes the hearts of people who would have been difficult with art, and try to visually reveal and feel the positive minds of humans.

Thus, the exhibition considers what the virtues of 'Posthuman' should have in the post-corona era caused by the counterattack of nature, and participates in the efforts of those who are concerned about 'new subjectivity' in which humans can escape from human-centered thinking and harmonize with non-human objects. When people heard the word 'posthuman', they could think of the combination of human and machine, but researchers who examine 'posthuman' did not just think of machine existence, but expanded the scope to 'non-human', which is not human beings such as weeds, animals, fungi, cells, viruses, discarded items in the city, etc., and began to pay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non-human. This research effort provides a clue to the question of what virtues humanity can have as a posthuman during the Anthropocene period, which is the main character of the world and is leading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he artworks introduced in this exhibition include commission works for the exhibition of *Posthuman Ensemble* in 2021, which Asia Culture Center Foundation tries to make tour focusing on recent environmental issues,

ChangChun Project's *Random Forest*, Eun Woo CHO's *AI, Brain Wave & Ideal City*, Lucas Syllabus's *Step of Life 'In to the World'* and *Step of Life 'The Ocean coming'*, and there is the Laotian media artist, Souliya Phoumivong's *Flow*. *Random Forest* focuses on the efforts of visitors to change their blunt or sad hearts to a happy mind in the process of reading artificial intelligence on the faces of various visitors who randomly visit the exhibition hall. And *AI, Brain Wave & Ideal City* induces positive alpha waves from visitors who use and experience EEG measurements. The two works provide a chance for visitors to experience their works to take care of themselves with a leisure of life for a while. Also, *Step of Life 'In to the World'* and *Step of Life 'The Ocean coming'* show the various nonhuman beings in nature that can be found around us, and show us that we can survive by coexisting with them, and that we can become a family with them. *Flow* shows what human beings are losing in the flow of matter, and suggests that the way out of materialism caused by human-centered thinking is the way for human beings to survive.

This exhibition reveals that there are various non-human beings on the earth other than humans, and suggests solidarity and coexistence with them. The destructive acts that constantly think only of humans undermine nature and sacrifice even humans, so *Ensemble* hopes to make a leap of posthumans who touch human emotions with warm hearts by objectifying human emotions including beings that are not human beings.

Curated by RUE Young Ah (Senior Curator, Cultural Contents Marketing Team of Asia Culture Center Foundation)

루카스 실라버스

루카스 실라버스는 지속적으로 인간이 발전시킨 문명과 자연의 병치를 통해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자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주목하였다. 커다란 나무는 생명의 근원을 상징한다. 그가 그리는 바다 깊은 곳, 하늘, 더 나아가 은하계는 인간이 발전시킬 수 없는 지식이다. 그는 포스트 휴먼도 친구, 파트너, 그리고 다른 존재들과 같은 가족을 여전히 필요로 하며, 인간이 향해 걸어가는 지향점은 가족임을 밝힌다.



Lugas SYLLABUS

Lugas Syllabus uses the parallels between human civilization and nature to emphasize that no matter how advanced the former is, it must rely on the latter for survival. In his series *Moon*, Syllabus uses blue and yellow moons to represent change, while a massive tree represents the source of life. His contributions to this exhibition are paintings and a sculpture that symbolically represent the integration and connection of human knowledge and life using the deep sea, sky, and Milky Way as figures out of human reach. His work emphasizes that even posthumans need family, which is the orientation point that humanity walks toward. The definition of “family” here is not only limited to blood relations but also extended to friends, partners, and other beings in nature.

〈삶의 길을 '세상 속으로'〉, 〈삶의 길을 '바다가 온다'〉,
2021, 캔버스에 아크릴릭, 180×130 cm
2021 ACC 〈포스트휴먼 앙상블〉 전시 커미션 작품
Step of Life 'In to the World', *Step of Life 'The Ocean coming'*, 2021, Acrylic on Canvas, 180×130 cm
Commissioned by 2021 ACC Posthuman Ensemble

루카스 실라버스(1987년 생, 인도네시아)는 족자카르타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이다. 그는 근현대 사회의 아이러니와 모순을 다루는 그림과 조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작품에 짜여진 것은 팝 컬처, 미디어, 기술의 서사와 도상학이다. 그것은 기억과 민속의 결합이다. 작가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예술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하였으며, 주요 개인전으로 2021년 베이징 아트 중국 린다 갤러리 《그래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다(Yes We Still Have Time)》 전시, 2019년 싱가포르 찬호리 컨템포러리에서 《우리 함께 춤추자(We Dance Together)》, 2018년 아트자카르타 찬호리 컨템포러리 《와이들 레전드(Wild Legend)》. 그는 독일 파사우, 호주 브리즈번, 한국,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또한 2009년 Artmajeur Art Award (Silver)를 수상했고, 자카르타 피데 인스티튜트의 베스트 코믹만화 20선에 선정되었으며,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서 2번째 헤리티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Lugas Syllabus (b. 1987, Indonesia) is a contemporary artist who lives and works in Yogyakarta, Indonesia. He is widely known for his paintings and sculptures that address the ironies and contradictions in modern and contemporary society. Woven into his pieces are narratives and iconography from pop culture, media and technology; coupled with memories and folklore. The artist completed his undergraduate degree in painting at the Institut Seni Indonesia (ISI) in Yogyakarta. His Selected Solo exhibitions include *Yes We Still Have Time*, Beijing Art Week, Linda Gallery, China (2021) *We Dance Together*, Chanhori contemporary, Singapore (2019); *Wild Legend*, Chan Hori Contemporary, ArtJakarta, (2018). He has participated in artist-in-residency programmes in Passau, Germany, Brisbane, Australia, Korea, Singapore and other country. Awards he has garnered include the Artmajeur Art Award (Silver) in 2009; 20 Best Comic Strip Goethe Institute Jakarta and the Second Heritage Winner for Portraits of Indonesia at the National Museum of Indonesia.

소울리아 푸미봉

〈플로우〉는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사회의 반영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만능주의에 매료되어, 때로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사치의 풍조를 따른다.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남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사용하고 또 해왔는데, 이 작품에서는 물소를 물질주의의 흐름을 따라가는 무지의 상징으로 삶의 순환 고리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 자신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음 물소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Souliya PHOUMIVONG

Flow. It is a reflection of the modern and progressive society, but most people are fascinated by materialism, following the trend of extravagance that sometimes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just asking for it. Has used and has done what others see as good, without even looking at himself that the things that he is trying to achieve are really necessary for himself or not, in this work has use buffalos as a symbol of ignorance that follows the trend of materialism one after another as the circle of life and raises the question whether we will be ourselves or will we be the next buffalo in this flow.

소울리아 푸미봉(1983년 생, 라오스)은 라오스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다. 현재 비엔티엔의 국립미술원(National Institute of Fine Arts)에서 미디어 스터디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12년에 그는 클레이 하우스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라오스에서 선구적으로 비디오와 스톱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다. 그의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라오스 최초의 클레이 애니메이션 TV 쇼는 4번째 시즌을 맞이하였다. 그는 일본 재단(Japan Foundation)과 싱가포르 현대 미술 센터의 레지던시 작가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에 태국 방콕의 짐 톰슨 아트센터(The Jim Thompson Art Centre)《미싱 링크(Missing Links)》 전시에 초청되었다. 2011년에는 한국 금호미술관에서 열린 《한-아세안 현대 미디어 아트 ASEAN-Korea Contemporary Media Art》 전시에 참여하였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호주 브리즈번의 퀸즈랜드 아트갤러리 현대미술관(QAGOMA)에서 개최한 《제 9회 아시아 태평양 현대미술 트리엔날레(The 9th Asia Pacific Triennial of Contemporary Art (APT9))》 전시에 초청되었다.

Souliya Phoumivong (b. 1983, Laos) is a media artist based in Laos and Professor of Media Studies at the National Institute of Fine Art in Vientiane. In 2012, Phoumivong established The Clay House Studio which focuses on video and stop-motion works and is the first of its kind in Laos. The studio is responsible for an array of projects, including the production of the first clay animation TV show in Laos which has reached its 4th season. He has been awarded artist residencies from The Japan Foundation and Center for Contemporary Art Singapore. His work has been included in exhibitions such as Missing Links, The Jim Thompson Art Centre, Bangkok, Thailand (2015) and Cross+Scape, ASEAN-Korea Contemporary Media Art Exhibition, Kumho Museum of Art, Seoul, South Korea (2011) and APT9, QAGOMA, Brisbane (2018-19).

〈플로우〉, 2018, 싱글 채널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8분 50초, 조각 설치. 이미지 작가 제공

Flow, 2018, Single-channel HD video, colour, sound, 8 minutes 50 seconds, Installation of clay sculptures.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장전프로젝트 (장준영 & 전지윤)

장전프로젝트의 <랜덤 포레스트>는 2021년 제작 시 전시제목의 ‘앙상블’이란 용어의 수학적 정의를 염두에 둔 인공지능 드론 비행 작품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드론을 제외하고, 무작위적으로 만나게 되는 볼특정 관람객들의 감정을 인공지능이 번역, 치환하고, 그 수없이 변하는 감정의 궤적들을 숲처럼 축적하여 평균을 보여준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번역하여 데이터의 형태로 전이(轉移)시키고, 그 감정의 궤적을 따라 ‘비인간이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어 존중하고 치유하는 행위가 된다. 이때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 맺음을, 가변성을 가진 물질의 상전이(相轉移) 모습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비인간들의 숲’을 그려낸다.



ChangChun Project (CHANG Jun Young & CHUN JiYoon)

ChangChun Project's *Random Forest* is AI-drone flight project inspired by the word "ensemble," also featured in the exhibition title, and its mathematical definition when it was created in 2021. For this exhibition, except for drone flight, this work uses AI to interpret and permute the emotions expressed by unspecified audience members, drawn from randomly occurring meetings, into drone flight paths that are then averaged through the accumulation of data such as forests. The AI's translation and transition of human emotions into data forms for drones and the drones' flight along these trajectories show that nonhumans can understand, respect, and heal human emotions. Through this process symbolically demonstrates the idea of a "forest of nonhumans" realized through the phase transition of material with variability in the myriad of mutual effect and reciprocity relationships created by humans and nonhuman objects like AI and drones.

<랜덤 포레스트>, 2021, 인공지능 드론 비행, 2021, 가변 크기. 사운드: 잭시스.

2021 ACC <포스트휴먼 앙상블> 전시 커미션 작품
Random Forest, 2021, AI Drone Flight, 2021, Dimensions Variable. Sound : ZXIS. Commissioned by 2021 ACC *Posthuman Ensemble*

장전프로젝트는 장준영, 전지윤으로 구성된 작가팀으로 2020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퀄리브리엄> 전시에서 인공지능, 드론, AR기술이 접목된 융복합콘텐츠 작품인 <회귀된 시간>(2020) 제작을 위해 결성되었다. 이후 <포스트휴먼 앙상블> 전시에서 <랜덤 포레스트>(2021), <경계조건> 전시에서 <슈퍼포지션>(2022) 등 인공지능 드론 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주)이오타랩스 대표인 장준영(1967년 생, 한국)은 장전프로젝트에서 작품 기획과 미디어 기획 및 기술 감독을 맡고 있다. 문화기술기획자로 IoT기반 실시간 데이터 큐레이션 알고리즘 인공지능기반 얼굴, 동작 영상분석 알고리즘 등을 개발하여 인터랙티브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이슈가 예술과 기술로 소통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다수와 협업하고 있다. 전지윤(1972년 생, 한국)은 미디어 아티스트로 장전프로젝트에서 작품 기획과 영상 감독을 맡고 있다.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시각적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하며, 예술, 디자인 그리고 기술의 영역에서 융합적인 시각적 언어를 연구한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개인전과 여러 단체전에서 작품을 선보여 왔다. 현재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뉴미디어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ChangChun Project, which is the artist team composed with Chang Jun Young and JiYoon Chun, was formed for Regressed Time, a fusion contents that combines artificial intelligence, drones and AR technology in *Equilibrium* in 2020. Since then, they showcase realtime interactive AI-drone flight project with *Random Forest* (2021) in *Posthuman Ensemble*, *Superposition* (2022) in *Boundary Conditions*. Chang Jun Young (b.1967, Republic of Korea), director of iotalabs., co.ltd., takes charge of planning artworks and directing engineering. He is a specialist of art and culture technology. He usually collaborates with specialists to make contents of social issues using any kind of technologies of Interactive Media Art such as IoT, AI, Realtime Audio Visual Engines.

Media artist, JiYoon Chun (b.1972, Republic of Korea) takes charge of planning artworks and directing films for ChangChun Project. It seeks to explore creative and differentiated visual methodologies, and studies convergent visual language in the areas of art, design and technology. From 1995 to the present, she has shown her works in a number of solo and group exhib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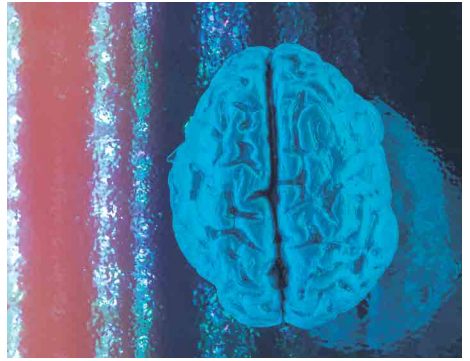
조은우

조은우의 <AI, 뇌파 그리고 도시>는 생체신호(BIO Singal Interface)인 뇌파를 사용한 과학 융합 설치 작품으로, 관람객의 뇌파로 제어되고 완성된다. 관람객은 뇌파 측정기를 착용하고, 작가가 캐스팅한 뇌, 팔, 다리, 몸통과 같은 신체 부분들을 바라보는 동시에 불빛과 작품에 자신을 모습을 비춰보면서 자신의 뇌파를 활용하여 빛의 프로그램 코드를 제어한다. 이는 도시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자신이 관계를 맺으며 공존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동시에 관람객의 뇌파/생체 신호가 데이터로 번역되어 다른 관람객들에게 노출되었을 때 일어날 현상들을 보여준다.

Eun Woo CHO

Eun Woo Cho's work *AI, Brain Wave & Ideal City* invites the spectator to wear a wireless EEG headset and look at body parts (e.g., brains, arms, legs, and torsos) cast by the artist and illuminated with superimposed images of the spectator and the lighting activated by his or her brain wave responses. This symbolizes how one coexists in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reflects on what would happen if one's responses, representing information, are translated into data and fully exposed to everyone else.

<AI, 뇌파 그리고 완벽한 도시 No. 2>, 2019, 뇌파연동 기기, 프로그래밍, 멀티미디어, 820×1,070×300 cm, 2019.
서울문화재단 후원, 2021 ACC <포스트휴먼 앙상블> 전시 커미션 작품
AI, Brain Wave & Ideal City No.2, 2019, EGG, Programming, Multi Media, 820×1,070×300 cm, 2019 Supported by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Commissioned by 2021 ACC *Posthuman Ensemble*



조은우(1981년 생, 한국)는 로보라이즌에서 디자인 브랜드 이사과 연구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주)벡트에서 전시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작가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후 OCAD 토론토에서 시각예술을 전공하였으며, SVA 뉴욕에서 시각예술을 전공하고 IDSSA에서 예술과 테크놀러지의 상관관계라는 주제 "User & Programmer"로 예술철학 박사를 수료했다. 작가는 귀국 후 뇌파로 연동되는 과학융합 예술작품을 통하여 작품의 주제와 매체에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REINA SOFIA NATIONAL MUSEUM Spain Madrid, Les Rencontres Internationales Paris, Beaux-arts de Paris, Korean Cultural Center New York and Los Angeles에서 전시한 바 있다. 제21회 대한민국 과학 창의 축전, 서울시립미술관 SeMA 창고, 플랫폼 L, 서울문화재단의 2017년 서울 상상력 발전소 등 참여했으며, 최근 이태리 플로렌스에서 열리는 학회 NYU Political Art Symposium에서 소개되어 활동 중이다. 2019년 인간공학상 디자인상과 2020년 굿디자인, 뇌파와 연동되는 환경전시 조달청 장상을 수상하였다. 2019년광주디자인 비엔날레 초청으로 로보라이즌 로봇 전시를 총괄한 바 있으며, 인도네시아 국립미술관에 초청되어 시와 로봇이 연동되는 과학 융복합 작품으로 매체를 확장 중이다.

Eun Woo CHO (b. 1981, Republic of Korea) worked for Roroborizon as a Chief Design Officer & Bord Member and now work for VECT as the Head of Art & Exhibition team. She was majored in visual arts in OCAD university in Toronto, Canada.

After she graduated her Master of Fine Arts at SVA at New York. Furthermore, she completed her doctorate course of Arts & Philosophy (MPhil/PhD.) under the main research entitled, "User & Programmer." After studying abroad for about 18 years, upon arrival in Korea, she started to re-presents her artworks related to Arts & Scientific field. Cho focused on her research on human brainwaves linked with her installation work (IoT/Robotic).

Cho participated in numerous art exhibitions and international shows such as Reina Sofia National Museum Spain, Madrid, Les-Rencontres Internationales Paris, Beaux-arts de Paris, and the Korean Cultural Center New York and Los Angeles. More recently, she displayed her works at the 21st Korean Science Fair, Seoul Museum of Art, Platform L, and got involved in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s Dream Plan Project, and also invited by Indonesia National Museum for the science integrated artwork with combination of AI and robot. Currently, she won various government grants and sponsorship such as ACC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Korea Arts Council Art & Tech 2nd types of funds, Seokyoung Lee's New Media Art Center, AIIF-(AI & Media) Joong-Ahang High-tech Master Program Festival, and Gwangjin Cultural Foundation.

2022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
기획전시 《앙상블》

2022. 10. 25/26.
라오스 비엔티안 센터

관람 안내
10월 25일 화요일 14:00~20:00
10월 26일 수요일 10:00~18:00

라오스 비엔티안 센터
비엔티안 쿠비엥 로드 XJ79+249

입장료 무료

2022 ASEAN-KOREA
Innovative Culture Forum
Exhibition *ENSEMBLE*

October 25/26, 2022
VIENTIANE CENTER, LAOS

Opening Hours
October 25th Tuesday 14:00~20:00
October 26th Wednesday 10:00~18:00

VIENTIANE CENTER, LAOS
XJ79+249, Khouvieng Road, Vientiane,
Laos

Admission Free

2022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

- 포럼: 문화를 통한 회복, 다시 도약하는 한-아세안인
돈 찬 팰리스 호텔
2022. 10. 26. 14:00~17:00
- 공연: 비엔티안 센터
2022. 10. 26. 18:00~19:00

www.pichub.kr

2022 ASEAN-KOREA

- **Forum: ASEAN-KOREA: Leap forward with Cultural Resilience**
Don Chan Palace Hotel
14:00-17:00 October 26, 2022
- **Performance: Vientiane Center**
18:00-19:00 October 26, 2022

www.pichub.kr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기획·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전시기획 유영아
그래픽 디자인 이기준
프레임 디자인 루카스 실라버스

Hosted by the Republic of Korea'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Organized by 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KOFICE)
Planned & Produced by Asia Culture
Center Foundation (ACCF)

Curated by RUE Young Ah
Graphic Design LEE Ki-joon
Frame Design Lugas SYLLABUS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 김선옥
사무국장 이성선
문화유통팀장 조정호
과장 유영아
<http://www.accf.or.kr>

ASIA CULTURE CENTER FOUNDATION
(ACCF)
President KIM SEON OK
Secretary General LEE SUNG SUN
Cultural Contents Marketing Team
Team Leader CHOUNGHO CHO
Manager RUE YOUNG AH